**마0526 Note**

**◆** ​**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한 회개** **​**

Ω마0525. 네가 네 상대[안티디코스:(소송에서)상대,(특히 최고 대적으로) 사탄,적, 대적]와 길에서 있는 동안에, 그와 빨리 화합하라(이스디: 네가 되라,네 자신을 전부 드리라), 이는 어느 때에 상대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 주지 않을까, 또 재판관은 너를 하속(下屬)[휘페레테스:하위 뱃사공,하속(下屬),조수,사찰,시종,관속,일군,수종자] 에게 넘겨주어, 네가 감옥으로 던져지지 않을까 함이니라.

마0526.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, 네가 가장 끝의(에스카토스:가장 먼,마지막의, 최후의, ~의 끝,마지막,종말,가장 낮은,최고의) 고드란트[코드란테스:고드란트(로마의 최소 동전),사분의 일]을 완불하기까지는, 네가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느니라..

25절과 26절은 한 문장인데, 편의상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
이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, 들어본 적도, 읽어본 적도

없습니다만, 제 영으로 느끼는 것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, 여기에 적습니다.

회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, 가능한 것이지요(예수님의 우편에서

함께 매달린 죄인의 회개를 생각해보시죠, 그는 마지막에 회개하여 낙원에 갔습니다),

육신으로 죽어서는 다시 말해 지옥에 가서는, 불 가운데에 가서는 누가 회개를

안하겠어요?

그러나 육신을 떠나서는 늦었습니다, 죽어서는 회개해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.

회개는 이생에서만 가능합니다,

25절과 26절의 말씀도, 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.

우리 이웃과의 불화, 반목이 있을 때에는 살아서 이 땅에서 해결하여, 화목하게

지내라는 말씀이며, 만약 우리 이웃과의 문제를 이 생에서 해결하지 못하고,

죽어서 저 생에게까지 가져가게 되면, 거기에서는(지옥에서는) 그 문제와 관련된

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호리까지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는

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.

◆로마의 동전 화폐 단위

◇고드란트(Kodrantes) : 앗사리온의 1/4

고드란트(Godrants): 로마의 최소 동전이며 그리스의 최소 청동화인 렙돈의 2배에 해당합니다(막 12:42).

로마에서는 하루 입욕료로 통용되었습니다. 성경에서는 한 가난한 과부가 연보 궤에 넣은 금액으로 기록되었습니다(막 12:41-44).

렙돈(Lepton): 헬라의 최소 동전이며 고드란트의 2분의 1, 앗사리온의 8분의 1, 데나리온(노동자의 하루 품삯)의 128분의 1에 해당합니다(눅 21:2, 막 12:42).

◇앗사리온(Assarius) : 데나리온의 1/16

앗사리온(Assarion): 로마의 소액 동전이며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합니다. 성경에는 참새를 파는 금액으로 인용되었습니다(마 10:29, 눅 12:6).

◇데나리온(Denarius) : 하루 품삯